

전북 근대사의 흐름을 살펴보다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분리된 지 120년이 되는 해를 기념, 전북박물관미술관협의회와 전주역사박물관은 공동주관으로 전북 근대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특별전 '전라북도, 다시 봄'을 16일부터 갖는다.

1896년 전국이 13도제로 개편되면서 전라도는 전라남·북도로 분할되었다. 56개 군현으로 구성됐던 전라도가 분리되면서 전라북도에는 26개 군이 편제되었다. 1914년 일제는 대대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전북을 1부(군산) 14군으로 편성하였다. 이때 형성된 군현 편성의 기본 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라북도의 역사를 네 시기로 나눠 소개한다. 전시유물은 전주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전북의 여러 박물관·미술관에서 출품한 근대 120년간의 자료들로 구성돼 있다.

〈조선 말 전북〉에서는 1896년 전라북도 와 전라남도도 분리되는 역사와 전북과 전남이 분리되기 전·후의 전라도지도, 전북도관할사 문서, 조선말 호적대장 등을 보여준다. 호남도선생인도 같이 전시한다. 선생안은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기관과 관서에서 전임 관원의 성명·관직명·생년·본관 등을 적어 놓은 책을 말한다.

〈일제강점기 전북〉은 일제강점기 행정

전라북도, 다시 봄 특별전

구한 말부터 광복 후까지 지역의 역사 담긴 자료 선배

도내 여러 박물관 등서 출품 근대 120년간의 자료들로

구역 개편과 일제의 수탈과 저항, 의병과 독립운동, 근대 민중종교 관련 자료들로 구성된다. 이등농장 신축공사 설계도를 비롯한 일본인 농장 문서, 소작료 감정부 등 소작에 관한 각종 자료, 수리조합 사진·자료를 선보인다.

〈광복 후의 전북〉에서는 광복이후의 도정과 지방자치제, 행정구역 변경, 민주화 운동 등을 다룬다. 1963년 금산군이 전북에서 충남으로 이속된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 금산이 전북으로 편제되어 있는 지도를 전시한다. 전북도민증, 리민대장, 선거공보, 도지사 담화문, 면장 임후보 안내문, 조성면역사 유서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전북사람들〉은 근대 120년을 살아온 전북인들을 대상으로 꾸며지며 교육·문화·체육·일상 등을 주제로 한 관련 유물 및 자료를 모았다. 정음 필자정 시지, 석지 채용신이 그린 초상화, 대한민국에



구한 말 '전라도지도'

술원 회장 민병갑의 작품, 1967년 달력과 월급봉지 등 비록한 일상생활 자료들이 전시된다.

전주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전북인으로서 정체성을 생각해 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전시제목 다시 봄에는 지난날을 돌아보는 것과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3월 26일까지 전주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개막식은 15일 오후 4시.

**문의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 228-6485~6. /정해은 기자

소리문화전당, 교육기부 대상 수상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전성진)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트쇼 탐험대' 등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5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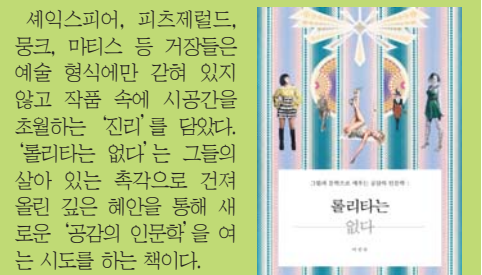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6 제5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은 13일 서울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가졌다.

전성진 대표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자, 전국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유일한 수상"이라며 "아트쇼 탐험대 등 전당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문화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트쇼 탐험대'는 예술을 즐길 줄 아는 미래의 관객들을 발굴하기 위한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전북지역 8개 중·고 1000여 명의 학생들은 공연감상 관련 이론교육은 물론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5월), 뮤지컬 '맘미아'(7월), 마당창극 '아나했다, 배 갈라라!'(9월) 등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다. /정해은 기자

'문학·미술, 고통·행복의 인문학'

화제의 신간 이진숙 '롤리타는 없다'



세익스피어, 피츠제럴드, 몽크, 마티스 등 거장들은 예술 형식에 갇혀 있지 않고 작품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진리'를 담았다. '롤리타는 없다'는 그들의 살아 있는 촉각으로 건져 올린 깊은 해안을 통해 새로운 '공감의 인문학'을 여는 시도를 하는 책이다.

특히 문학과 미술이 어떻게 통섭을 해 왔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인문학적 감성'을 건드릴 것이다. 이 책은 쓴 이진숙은 "좋은 삶, 인간적인 성숙을 위해서 나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 보고 생각해 보고 공감하고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는 연습을, 우리는 고집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문학과 미술인가. 이진숙은 데이트 폭력, 헤어진 연인 동영상 유포 같은 비상사적인 일상은 '사랑'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게임'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목포가 되지 못하고 수단으로 전락할 때, 삶은 망가진다. 이것을 가장 잘 포착하고 성찰로 이끄는 게 바로 문학이다. 한편 인간의 감각을 즉각적으로 자극하는 건 시각예술이다. 매일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삶이 펼쳐지는 바쁜 삶에서 자치 지나치게 쉬운 상처와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문학과 미술은 따로 놀지 않았다. 위대한 시인과 화가, 천재 소설가와 조각가는 서로 교류하며 시대 공감을 나눴다. 롤리타적인 친구 관계도 있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떨어져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같은 고민과 고통을 겪었다. 이처럼 미술과 문학의 소통은 지금 우리 앞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 보다 더 큰 생각의 장을 열어줄 수 있다. 그 고민과 고통은 결코 그들만의, 그 시대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해 '롤리타는 없다'의 이야기들은 독자에게 가닿을 수 있다.

그래서 이진숙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타인의 행복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인간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파멸이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읽고 감상할 위대한 고전 문학과 미술은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고 말한다. **292쪽, 1만6000원, 민음사 /뉴시스

전북여성미술인협회, '사랑의 기금 마련' 전시회

전북여성미술인협회(회장 이경례)는 13일부터 18일까지 전주교동아트스튜디오에서 제3회 '사랑의 기금 마련' 전시회를 연다.

김분임, 문연남, 송영란, 은호동, 이성옥 등 81명의 중진·중경·신진작가들은 이번 전시에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등의 미술작품을 출품했다.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일괄적으로 한 점당 30만원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한국화가 송영란 작

가는 "전업작가들도 그리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연말연시를 맞아 좋은 일에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라 기꺼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경례 회장은 "전시를 통해 동시대를 함께 사는 이웃들과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회원들 모두의 따뜻한 정성이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미술인협회는 제1·2회 사랑의 기금 마련전을 통해 얻은 천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한 바 있다. /정해은 기자



'여기는 우리나라 농촌 활력의 수도·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 농업농촌식품과장은 근무하는 강평석 과장(사진)이 '나는야 뽀빠이 공무원'이라는 책을 최근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완주군민들과 자신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완주군의 성공 사례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감동을 선사한다는게 주 내용이다.



일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을

변화시킨 사례를 담고 있다. 또한 나후되고 희망이 없었던 완주군을 대한민국 농촌활력의 수도 로컬푸드 1번지로 변모시킨 과정을 현장중심, 정책과 사람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완주군을 벤치마킹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공무원, 그리고 성공과 변화를 원하는 CEO오직장인에게도 좋은 길라잡이가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농업과 농촌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치열하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고 싶었다"며 "완전한 고을 완주군의 강점과 매력을 더 많이 알리려면 귀농귀촌으로

완주군청 강평석 과장 '나는야, 뽀빠이 공무원' 출간

로 연결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책의 주인공인 "뽀빠이 공무원"은 건강하고 신선한 완주산 로컬푸드 음식을 먹고 놀이터 완주군에서 주민들과 신나게 놀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속 시원하게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강평석 과장을 뜻하기도 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14일>

▷쥐띠
48년생: 혼자만을 생각하지 말것.
60년생: 경쟁자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
72년생: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하는 운이다.
84년생: 동기들과 시비가 따르니 가벼운 농담을 삼가라.

▷소띠
49년생: 신상을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운이나 금전적으로는 좋은 운이다.
61년생: 투기나 투자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7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85년생: 자신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는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하는 일에 막힘이 생기는 운이다.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74년생: 주변사람의 도움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성사될 수 있다.
86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윗 사람의 조언을 구해라.

▷토끼띠
51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니 하지 말아야 하는 운이다.
63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언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
75년생: 귀인의 협조가 따르는 운이다.
87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다. 중요한 약속이나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용띠
52년생: 사소한 일에 웬매이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 앞을 내다봐야 할 때.
64년생: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위기와 함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
76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나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운이 아니다.
88년생: 속으로 생각한 것들은 외부로 표출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뱀띠
53년생: 결호로는 화려한 듯 하나 실속이 없는 운이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은 운.
65년생: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좋겠다.
77년생: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은 잠시 접어두라.
89년생: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반드시 화가 미친다.
66년생: 지금은 지속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
78년생: 주변의 관계를 돈독하게 재정립해야 할 운이다.
90년생: 한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띠
55년생: 베풀면 덕이 되어 돌아오는 운이다.
67년생: 지나친 과단성은 부작용을 불러온다.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이 용이한 운이나 독단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진행하면 낫다.
91년생: 때로는 결손한 언행이 자기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법이다.

▷원숭이띠
56년생: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라.
68년생: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시의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8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놀랄만한 일이 발생하는 운이다.
92년생: 손윗사람에게 결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때다.

▷닭띠
57년생: 지나치게 계산적인 생각으로 인해 기회를 놓칠 염려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69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 많을 듯.
81년생: 고집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막히게 하는 요소가 되니 주의하라.
9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해도 된다.

▷개띠
46년생: 새로운 일을 하거나 변동수를 갖는 것은 오히려 때를 기다려라.
58년생: 심혈관계통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니 조심하라.
70년생: 매사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면서 자중해야 하는 운.
82년생: 몸애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

▷돼지띠
47년생: 변화를 추구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현상유지가 해답이다.
59년생: 사소한 실수로 구설이 오르니 주의하라.
71년생: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함께 하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하라.